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줘도 유아교육은 60%가 성공이다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동례

17세기 교육학자 존 로크는 인간의 타고난 마음은 백지와 같아서 아이는 백지에 그림을 그려가듯 세상의 지식을 익혀간다고 하였다. 즉 새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인 아이들에게 부모의 행동들은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가는 통로가 된다. 부모를 통하여 생존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 등을 터득해 가는 것이다. 부모의 모델링을 통해 원초적인 배고픔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이유식을 먹기 위해 숟가락과 빨대를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점차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방법과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방법 등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유아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기본교육을 형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어린 자녀에게 한글을 깨우치고 수, 문자를 터득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는 간단한 연산 및 지식정보 검색과 난이도가 높은 문제 등은 모두 인공지능이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올바른 삶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행동하는 자녀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삶의 질”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한 끼의 식사비용만큼 비싼 커피를 마실지라도 나를 돌아보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는 시대이다. 미래사회는 더욱 더 삶의 질에 가치를 두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만드는 비법 등을 남겨주는 일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며 영유아기 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과 행복을 나누고 전달하는 방법, 친절을 베푸는 모습,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들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 말이다.

가장 바람직한 유아기의 자녀교육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링의 방법은 가정에서 두 부부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방법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 화가 나고 싸웠을 때 화해하는 모습, 행복함을 전달해 주는 모습 등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인관계 비법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며, 부부의 일상생활 속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모델링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가족끼리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행동으로 모델링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빠의 출·퇴근 시간에 아이와 손을 잡고 현관문 앞까지 마중 나가 아빠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엄마는: “어서 오세요, 여보! 오늘도 고생이 많았지요.” 아이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어서 오세요. 아빠 기다렸어요!

② **부부싸움도 틀이 있으며, 아이 앞에서 싸울 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반드시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애들 앞에서 애들 문제로 다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필요 이상으로 죄의식과 상상력을 갖고 있어 사소한 것도 모두 '자기 탓' 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이 끝난 다음 아이들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사과합니다. 이를테면 “네가 철수랑 놀 때 너는 소꿉놀이가 하고 싶었는데 철수가 못하게 해서 화가 났지? 엄마 아빠도 그래서 화가 났단다.” 식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③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을 위해 기념일은 반드시 챙겨주세요.** 특히 생일날이 다가오면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리나 게임 등을 실행하거나 개개인의 소박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준비하여 전달하고, 영유아의 경우는 부모가 선물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직접 만든 블록이나 그림, 만들기 작품 등.. 또한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1주일 한 번쯤 사소한 일이라도 축하할 일을 찾아 온 가족이 다과를 즐기도록 합니다.

④ **지역 공동체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들을 아이와 함께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만나면 부모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나누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가족과 함께 치우기, 공공장소, 식당에서의 예절 등은 식당 방문 전에 미리 아이에게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⑤ **부부가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사랑의 감정을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부모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에게 언어와 포옹을 통해 신체적 접촉을 자주하게 되면 아이는 사랑 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⑥ **집안의 모든 일은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또한 결과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주니 너무 기분이 상쾌해요. 오늘 당신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당신 건강이 늘 걱정 되요. 어서 좀 쉬세요. 당신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당신 생각이 옳았어요. ○○도 엄마/ 아빠를 도와줄 수 있겠니? 지금 아빠가 바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 식탁에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등 부부공동의 집안 일 참여와 작은 일이라도 아이를 참여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맥주 한 컵을 시켜놓고 반나절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만큼 대인간의 의사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들 눈에 비친 부부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 부부가 함께 대화를 통해 의논하고 결정해나가는 모습을 모델링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가족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도록 부부가 자주 포옹하고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도와줘!, 도와주고 싶어!, 잘하고 있는 거야! 등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언어들을 통한 감정표현이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은연중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말로 소소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부모님의 진정한 가르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